

# 성철스님 생가 복원

## 집의사 창건 회향법회...사부대중 5천명 참석

조계종 제8대 종정을 역임한 성철 대종사의 생가 탄생 90주년, 열반 8주기를 맞아 3월 30일 복원됐다.

해인사 성철스님문도회(회장 법진)와 경남 산청군(군수 권순영)은 30일 단성면 목곡리에서 법전 해인총림 방장,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철 대종사 생가복원 및 집의사주지 원구 창건 회향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사부대중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성철 대종사 생가복원 및 집의사 창건 회향법회'의 테이프 절단장면. 사진=고영배 기자

52억 들여 2년반 공사  
대웅전·선원 등 건립

가사등 유품30점 전시  
김 대통령 축하 메시지

의 준공 축하 메시지도 낭독됐다. 이번 불사는 지난 98년 열반 5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문도회와 산청군청이 공동으로 시작해 2년6개월만에 완공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16억원과 불자들의 보시금 등 모두 52억이 소요됐다. 자기를 바로 복사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는 축하객들의 화환과 보시금을 쌀로 대신한 한 뒤, 이를 신성군내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일체종생의 행복을 기원하'던 성철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되새겼다.



◇성철 대종사

성철스님의 생가는 3천789평의 부지에 안채, 사랑채, 유물 전시공간이 있는 생가 대웅전과 선원 쌍검당, 요사채 정오당, 누각 벽해루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1912년 태어난 스님이 1936년 동산스님은 은사로 출가하기 전까지 살았던 복원된 생가에는 스님이 30여년간 머물던 해인사 백련암 영화실, 부친 이상언과 모친 강상봉 여사가 사용하던 방을 재현했

고, 유물전시관에는 백련암에 보관 중이던 누더기 가사와 장삼, 지팡이, 덧바신, 검정 고무신 및 '마삼근(麻三斤)'이란 친필 화두 등 30여점의 유물이 전시됐다. 또 단성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의 학적부와 젊은 시절의 메모 등이 전시돼 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www.SONGCHOL.net) 동영상 통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생애와 어록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집의사 대웅전에는 김호석 화백이 그린 스님의 진영이 봉안돼 있고, 대웅전 옆에는 조각가 강대철 씨가 만든 스님의 입상이 들어서 동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집의사는 단순한 사찰 기능에 머물지 않고, 인근의 폐교를 임대해 퇴공수련원을 세워 청소년과 불자들을 위한 선 수련회 등을 열 계획이다. (055)973-1615 김재경 기자

## 사암련 회향에 듣는다

# “재가불교 새바람 일으킬터”

### 성남불교사암총련 보광스님

“30만 지역 재가불자를 결속해 신도시 포교의 신기원을 이루겠습니다.”

1971년 9월 상구부리 하회중생의 불법이념으로 증생교와 및 스님들의 상호교류와 인격향상을 위해 창립된 성남시불교사암총련합회의 회장인 보광스님(석학사 주지)은 “무너진 재가 수행조직을 재건해 성남 및 분당 신도시 포교에 새롭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남불교사암련에 등록된 회원사찰은 관내 120여개 사찰중 77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30년 전통에 걸맞게 성남시와 분당 신도시 인구 100여만명중 3분의 1에 달하는 30여만명의 불자가 수행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중의 숫자가 어울리지 않게 재가불자의 조직은 거의 전무한 실정. 4년전 성남 불교산악회를 중심으로 수행단체연합회가 결성돼 활발한 수행을 펼치려는 IMF 관리체제를 맞아 수행단체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조직이 급속도로 무너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든 수행이 신도 보다는 사찰과 스님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보광스님은 “올해 연동축제를 성남시 공설운동장과 시내에서 대규모로 거행하고 불우이웃 돕기행사도 펼쳐, 재가불교 활성화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연합회는 주로 보살행을 통해 시민과 불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스스로 깨우쳐 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광스님은 석학사내에 4층 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 재가단체의 수행공간을 제공하고 휴게공간을 열어 새벽 불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 30만 불자 결속 보살행 나서

### 군경·재소자 포교도 역점

연합회는 그간 재가불교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역할을 해 왔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승가상을 확립해 시민들의 정신교화에 나서고, 불교적 사회봉사의 참뜻을 전하기 위해 보살행에 앞장서 왔다.

무의탁 노인시설인 자광원을 수시로 후원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들을 분기별로 도와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성동구치소와 안양 서울구치소의 재소자 교화는 물론 55사단과 분당경찰서, 성남중



부경찰서, 성남남부경찰서의 장병 경찰을 위한 군·경승 활동도 활발히 펼쳐왔다.

성남병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스님에게 50%, 불자들에게 10~20%의 진료비 인화해택도 주고 있는 보광스님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사찰받는 불교, 존경받는 불교가 되는 길이 포교의 지름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성남시 개신교계와 일화축구단의 갈등으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보광스님은 경신연합회 등 무속인이 많은 지역특성도 고려해 신도시 포교전략을 새롭게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대광사 분당신도시 포교

## 원통보전 낙성...불교회관·유치원도 추진

경기 분당 대광사주지 도제는 3월 24일 원통보전 낙성을 봉행하고 신도시 포교에 첫발을 내딛었다.

대광사는 서울 우면산 관문사에 이은 천태종의 수도권 전법도량으로도 심포교의 새로운 장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당 신도시 불국산에 자리잡은 대광사 원통보전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천150평 규모, 3층은 281평 규모의 법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요사채와 종무실, 수행단체 모임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앞으로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출 예정인 대광사는 연면적 7천여평의 대

## 치악산 구룡사 산신제

### 노인·소년가장 위안법회

원주 치악산 구룡사주지 원행는 8일 단절됐던 산신제를 10년만에 봉행한다.

구룡사는 이날 오전10시 조선시대 때부터 전통적인 행사였던 치악산 산신제를 거행해 원주지역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고, 오후1시부터는 원주지역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 등 3천여명을 초청해 노인 위안 기원대법회를 열기로 했다.

원행스님은 “산신제를 복원해 국민화합과 국가 발전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033)744-8100 김재경 기자

## 제주 4·3 원혼 천도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중원 스님(4·3원혼천도대제 봉행위원회위원장 고우방)는 4·3 53주기 맞아 3일 오후 4시 30분 4·3 원혼 천도대제를 봉행하는 한편 이날 오후 7시 30분 관음사 도량에서 대규모의 4·3 위령 음악제를 갖는다. 이날 천도대제는 제주도에 각 마을별 위패와 다량귀곡·큰 날개·무등이웃 등 4·3의 피해현장 254개 지역의 위패를 모셔 4·3의 억울한 영혼들을 달랜다. (064)722-2829.

## 종단소식

### 조계종

#### 선문화 첫 정기총회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화’(회장 영운스님)는 10일 오전 11시 울산 석남사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비구니 원로스님을 비롯 비구니선원장, 입승, 주지, 도감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통과와 건과 활동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052)264-8900

### 법륜종

#### 수덕사 미륵불 회향법회

광주 수덕사(주지 해명)는 3월 27일 보살 천불선원 조실 도문스님을 증명법사로 미륵부처님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천불사 주지 지훈, 관음사 도광스님과 신도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도문스님은 법어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항상 마음속에 불국정토가 되길 발원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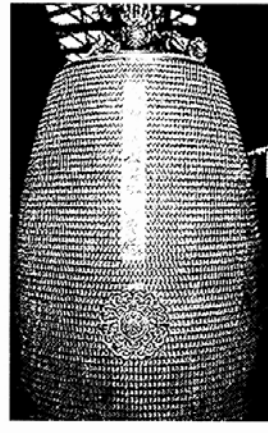
# 부드럽고 여운 긴 황동 종소리

## 영천 만불사 대법종 조성

황동에 1만불을 새겨 만든 범종이 경북 영천 만불사주지 학성에 1일 안치됐다.

만불사는 황동만불대법종(사진)이 무게만도 3천300kg, 종신의 길이가 4m, 지름 2m 규모로, 황동으로 주조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간 황동은 재질이 약해 종소리를 내기 힘들어 범종주조가 시도되지 않았으나 자료조사와 여러 차례의 연구 주조 끝에, 부드럽고 여운이 긴 종소리를 울리는 황동 범종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사찰측의 설명이다.

특히 범종의 몸통에 일만불(一萬佛)의 부처님이 조각돼 삼국유사에 기록된 만불부처 조각을 범종으로 재현했다. 또 황동범종이 안치될 범종각은 높이 20m에 3층 규모로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띤 국내최대 규모의 범종각이다. (054)335-0100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 가정을 지켜주는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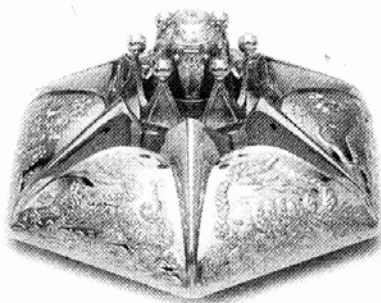
## 氣란? 현실입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짓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치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고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기방은 기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 기(氣)란 : 현실이다



- 항상 가정에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명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 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소원성취·안전운행·사업성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악귀퇴치·극락왕생·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마을마다 장소가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오.

## 명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 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점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神將)이 항상 수호해 주므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 ◆“보이지 않는디미어법칙을 어기지말라.”◆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명당 육기방이 확달라 졌습니다.

◆시용지◆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시집, 임지, 절막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06-6741-1923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명당육기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